선 교 소 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성교회 한국어부

- Home Depot 사역 (마트 앞 전도)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카를로스 차베스 목사
- 러브 멕시코 - 박세목 장로
- 알바니아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나성교회 영어부

- 캄보디아 (TASSEL) - 조지 타츠기
- 인도네시아
  - 루스, 오스틴 쿠클렌스키 부부
  - 조사야, 소피 글레세너 부부
  - 마이클, 모건 르블랑 부부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20절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나소식

118호

삼성교회 나성교회

2026년 8월 2일 SAMSUNGCH.OR.KR 118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마가복음 16장 16절

날짜: 2026.7.19.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했고,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과 침례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종교적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 나셨다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를 보내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느낌 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내 감각이나 감정으로 판단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외적인 고백과 확증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처럼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첫 행위가 됩니다.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침례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하거나 믿음 없이 죄를 씻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믿음 없이 행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 구원의 사실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침례의 의미를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 자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침례는 또한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과 욕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체계를 의미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무분별하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고 합니다. 성도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과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도의 목적을 위해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세상의 죄와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에 타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도 세상과 육신에 매이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침례 이후의 삶은 부활의 생명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와 육신의 지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선언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의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침례는 옛사람 의 죽음과 새사람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출발입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삼성교회 일정

- 침례식: 8월 14일(금), 오후 3시, 강원도 평창

교 회 후 원

우리은행
1005-602-532517
예수교대한웨슬레회삼성교회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사역자들(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 될 수 있도록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장금숙 집사 –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6주 진단)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아영 사모 -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한나선교회) –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한나선교회) – 남편(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한나선교회)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2여선교회)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한나선교회) -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3남선교회)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Lee, Miriam (에스더 선교회) -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김학철 목사님 -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 후유증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 오른쪽 어깨 탈골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감소과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님 -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통증회복을 위해.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송제인 집사(1여선교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유니스 안 (4,5여선교회) -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말씀 요약과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정욕과 마땅치 못한 습관들이 드러납니다. 이를 말씀의 빛 아래서 계속 끊어내고 씻어내는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으나 최근 말씀의 빛 아래서 새롭게 깨닫게 된 나의 버릇이나 태도가 있습니까? 이를 잘 끊어버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간일정

- 청소년부 하계수련회:
  8월 7일(금)~9일(일), 대부도

삼나소식 모바일

http://samsungch.or.kr/samnanews